

5·18 특별법 ‘패스트트랙’ 올린다

〈국회선진화법 보완 신속처리 규정〉

민주당·국민의당 국회 토론회
사회적참사법 통과 처럼
신속처리 규정 이용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정기 국회 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가 어려울 경우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규정을 이용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까지 손을 맞잡고 이번 정기국회에 함께 입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그게 안되면 국민의당과 손잡고 사회적참사법을 통과시켰듯이(5·18 진상규명 특별법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5·18은) 이미 오래 전 이야기이고 한국당에 속한 분들과 대부분 관계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당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 발언은 최근 양당 찬성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제정된 전례처럼, 5·18진상규명 특별법과 같이 민주당·국민의당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의 제정을 위해 사안별 입법연대를 하자는 취지로 일한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한츠페터 사진전’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어느 정당, 정치인이라도 반대하면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내년에는 처리하겠다”며 패스트트



무 밭의 가을 수채화

27일 농부들의 분주한 손길에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한 무 밭의 푸른 빛이 마치 칠면이 지워지듯 사라져 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랙을 이용한 법안 처리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85조2)은 국회 재적의원 또는 안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의 요구로 법안을 ‘신속 안건’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의무적으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5·18 진상을 규명 하자는 데 왜 한국당이 반대하느냐”며 불

만을 표시하면서도 “국회에서 한국당과도 논의를 하지만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별개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국민의당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한목소리로 국회선진화법에서 정한 패스트트랙 규정을 언급하며 한국당을 압박한 데는 5·18진상규명 특별법안이 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김동철·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각각 5·18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한국당 측의 비협조로 법안이 수개월째 소관상임위(국방위)에 잠들어 있다는 게 토론회 참석 의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내년 2월까지 개헌안 완료...분권형 개헌 총력전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내년 초 10만명 참여 집회도

늦어도 내년 2월 중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전국 분권 지지 세력들이 정치권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관련기사 3면>

분권형 개헌을 실무적으로 추동해 나갈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장해 외연을 넓히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한다. 또 내년 초 국회 앞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 분권형 개헌을 향한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26일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 시·도별 조직을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충북은 시도별 시민회의가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벌

이고 있다. 경남은 준비위가 결성됐고, 울산과 인천, 경기, 충남은 시민회의의 구성을 준비 중이다. 분권개헌 시민회의에는 지역 시민단체, 광역자치단체와 의회,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는 물론 언론, 학계 등 민·관·학·언론계가 모두 참여해 지역의 힘을 총집결하게 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이처럼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늦어도 2월 중순까지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개헌 절차에 소요되는 법률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월에는 각 정당별 분권형 개헌안을 도출하고, 2월 중순까지 합의된 분권형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추진위원으로 위촉해 힘을 모으고, 유보적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조직을 맨투맨 식으로 담당시켜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분권형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언론에 실명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표로 심판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알립니다

한국 문단의 주인공, 당신입니다



2018 광주일보 신춘문예

12월 14일까지 접수합니다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

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 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 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치열한 문학 정신이 살아 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 원)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 원)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 원)

■ 접수 마감 : 2017년 12월 14일(14일 자 소인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61482,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부) 문의 062-220-0624

■ 기타 유의 사항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원고 접수 시 전화번호·주소·e메일주소를 첨부해 주십시오.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 표절일 경우 당선시 취소됩니다.

-결정부에 공모 부문을 꼭 명기해 주십시오.

-당선작은 2018년 1월 2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심사 막판 진통

시민평가단 구성 싸고 이견

29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심사를 앞두고 광주시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평가단 구성과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심사일정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28일 시민사회단체와 개별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27일 “시민평가단 구성과 관련 선별 원칙, 규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와 긴급간담회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단 13명, 시민단체와 민간공원 주변 주민자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민평가단 10명을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민간공원 시민심사단 구성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평가단의 규모가 너무 적고,

공모가 아닌 추천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시는 심사 일정이 외부에 공지된 이상 행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 재협의를 주문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관련 실·과 담당자들을 불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민관커버넌스라는 소중한 의 자리를 만든 이상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중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후원 | KORAIL 광주본부 SR | 본 상품은 우수해양관광상품공모전에 선정된 상품입니다 |

전복과 함께하는 땅끝마을·슬로시티 청산도여행 1박2일

1일차

- ▶ 용산역(07:20) / 광명역(07:40) 도착 후 KTX 탑승
- ▶ 수서역(07:10) / 지제역(07:30) 집결 후 SRT 탑승
- ▶ 용산역(07:49) / 광명역(08:04) / 수서역(07:40) / 지제역(07:59) 출발
- ▶ **광주송정역 도착 후 출발(09:37)**
- ▶ 송호마을 도착 후 중식(12:00)
- ▶ 송호리해수욕장, 전복 양식장 견학(12:40)
- ▶ 송호마을 출발(15:00)
- ▶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위치한 해남 땅끝마을 관광
- ▶ 땅끝 모노레일이용시 개별부담입니다.
- ▶ 땅끝마을 출발(16:30)
- ▶ 숙소 도착 후 배정 및 자유석식(17:00)

※교통편 : KTX or SRT 전용차 / 중식만 제공

2일차

- ▶ 조식 후 출발(07:00)
-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08:30)
- ▶ 완도여객선터미널 출발(09:00)
- ▶ 슬로우시티 청산도 도착 후 관광-서편제, 봄의왈츠 세트장(09:40)
- ▶ 청산도 자유중식 후 출발(13:00)
- ▶ 완도여객선터미널 도착(13:40)
- ▶ 다산초당·백련사 도착 후 관광(15:00)
- ▶ 백련사 출발(17:00)
- ▶ 광주송정역광장 도착 후 송정 1913시장 관광 및 자유 석식(18:00)
- ▶ 광주송정역(KTX-19:39 or SRT-19:39) 출발(19:24)
- ▶ 광명역(20:54) / 용산역(21:10) / 지제역(21:05) / 수서역(21:32) 도착

※교통편 : KTX or SRT 전용차 / 조식만 제공

출발역	성인			소인
	2인실	3인실	4인실 이상	
용산역-수서역	250,000	245,000	240,000	190,000
광명역-지제역	245,000	240,000	235,000	185,000
광주송정역	160,000	155,000	150,000	140,000

참고사항

- 최소출발인원 : 10명 이상 출발 조건
- 포함사항 : 왕복 KTX 열차비, 차량비, 숙박비, 1일째 중식 2일째 조식, 양식장 현장견학비
- 불포함사항 : 여행보험, 일정표상 식사3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이 불가능 하므로 여행사에서 여행상품 운영시 여행자보험에 대해 가입할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여행사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연계버스는 출발인원에 따라서 차츰이 변경됩니다. (합참차/중형차/대형차)
- 상품별 최소 출발인원이 부족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출발 4일전에 연락드립니다.
- 취소 환불규정 : 여행출발 3일전 취소시 80% 환불, 2일전 취소시 50% 환불, 1일~당일 환불불가
- 홈페이지 접수 : www.daewontour.com(대원여행사)

계좌번호 : 농협 301-526-7000-191 (주)대원여행사

해외여행 · 국내여행 · 할인항공권 · KTX기차표 · 허니문 · 단체여행 · 골프투어 · 기차여행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 (현대자동차빌딩 옆) | 메일 : daewonkr@hanmail.net
 Tel. 062)526-7000 H. 010-9715-1000 www.daewontour.com